

# 유아의 행동억제와 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Autonomy Support

이하람<sup>1</sup> 신나나<sup>2</sup>

Haram Lee<sup>1</sup> Nana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autonomy support on preschoolers' anxiety.

**Methods:** A total of 295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measures of their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First,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anxiety. Preschoolers with higher behavioral inhibition displayed higher levels of anxiety. Second,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Third, maternal autonomy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promoting autonomy support to prevent preschoolers' anxie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with behaviorally inhibited preschoolers.

\*본 논문은 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 <sup>1</sup> 제1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석사

### <sup>2</sup> 교신저자

이화여대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key words** behavioral inhibi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xiety

## I. 서론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2013)가 실시한 ‘영유아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 개발’ 연구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약 8.25~28.78%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불안, 위축,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네이버스(2016)가 국

내 유아 3,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약 18%의 유아가 심리, 행동 발달에 어려움을 보였고, 이 가운데 10%의 유아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유아의 정신건강,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내적으로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나타나는 것으로(Achenbach, 1991), 위축, 우울, 불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유아기 내면화 문제행동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판별이 어려워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유아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Paulus, Backes, Sander, Weber, & von Gontard, 2015) 이 시기 내면화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안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으로(Albano & Krain, 2005), 미래의 위협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나타나는 긴장감과 강한 부정적 정서로 특징되는 정서 상태이다(Barlow, 2002). 유아기에 경험하는 불안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Woodruff-Borden & Leyfer, 2006), 불안이 지속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아의 일상과 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할 때는 중재가 필요하다. 유아기 정신병리 중 불안장애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Albano & Krain, 2005),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유아의 경우 불안이 만성화되거나 공존 질환을 야기하는 등 발달에 부정적이므로(Wittchen & Essau, 1993), 이 시기의 불안증세가 불안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강조된다. 따라서 유아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불안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기질로, 기질의 다양한 차원 중 행동억제는 유아의 불안을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왔다(Chronis-Tuscano et al., 2009; Howard, Muris, Loxton, & Wege, 2017; Rapee, 2001). 행동억제는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접근을 피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기질적 속성으로(Kagan, 2003), 유아의 약 15%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gan, Reznick, & Snidman, 1988).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고, 말이 없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생리적 각성 반응을 보이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양육자에게 매달리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행동억제는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등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질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Fox et al., 2005),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 모두에서 불안장애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개월부터 7.5세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억제를 보인 유아는, 행동억제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았고(Hirshfeld et al., 1992), 2세 때 행동억제를 높게 보인 경우 6세에 불안장애를 보이는 경향이 더 높았다(Wichstrøm, Belsky, & Berg-Nielsen, 2013). 또한 행동억제를 보이는 유아의 15.9%는 하나의 불안장애를, 6.3%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불안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Paulus et al., 2015). 이렇듯 행동억제는 유아의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하

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가 유아의 불안장애 유병률을 높이는 등 행동억제와 불안 간의 관련성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Asendorpf, 1989; Hirshfeld-Becker et al., 2008),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기 불안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다(Maag, Phelps, & Kiel, 2020;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행동억제를 보이는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통제적 양육행동으로(Shamir-Essakow, Ungerer, Rapee, & Safier, 2004), 특히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독립심을 저해하는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Kiel & Buss, 2014; Maag et al., 202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보호하여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통제하고 허용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하며(정영선, 2020),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직접적인 도움을 더 제공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다(Hudson, Dodd, & Bovopoulos, 2011; Rubin & Mills, 1990). 또한 유아는 아니지만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el & Buss, 2014).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Edwards, Rapee, & Kennedy, 2010)과 과잉개입(Hudson et al., 2011)을 더 할수록 유아의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려움이 높은 기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을 예측하였으며(Kiel & Buss, 2012), 수줍음이 많고 억제된 학령초기 아동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유발하여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ngua & Kovacs, 2005). 이처럼 어머니가 과보호를 하는 경우 아동은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고, 고통이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Gibler, Kalomiris, & Kiel, 2018).

행동억제나 불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육행동의 또 다른 요인은 자율성 지지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이 독립적인 문제 해결, 선택,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Grolnick & Ryan, 1989). 유아기는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시기이나, 유아기에 행동억제를 많이 보이는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공감을 덜 하며, 긍정적인 훈육 기술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tridge, 2003). 또한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는 아동의 성취를 장려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et al., 1998). 이외에도 행동억제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2세 때 수줍음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독립심 격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Nelson, Hastings, & Asendorpf, 1999). 또한 걸음마기 아동이 부정적 정서성을 높게 보일 경우(Andreadakis, Laurin, Joussemet, & Mageau, 2020), 그리고 자녀의 기질을 어머니가 까다롭게 지각한 경우(Neitzel & Stright, 2004)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보였다.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으며(서윤희, 2013; 홍향기, 2015), 어머니가 독립심을 더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은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

였다(Gibler et al., 2018).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없지만, 유아의 기질,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 간 관계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ulussen-Hoogbeem, Stams, Hermanns, Peetsma, & van den Wittenboer, 2008).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유아는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또한 유아가 수줍음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비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더 보이고, 이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행동억제와 불안,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일부 변인들 간 경로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 및 유아의 불안 간 관계를 통해 네 변인들 간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경로와 구조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을 증가시키며 유아기 발달과업 획득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의 양육 행동으로 알려져 있으며(Edwards et al., 2010), 이와 달리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기 주도성 획득에 도움을 주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으로 알려져 있다(Gibler et al., 2018).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양육행동을 한 모델에서 살펴보는 것은 유아의 불안에 행동억제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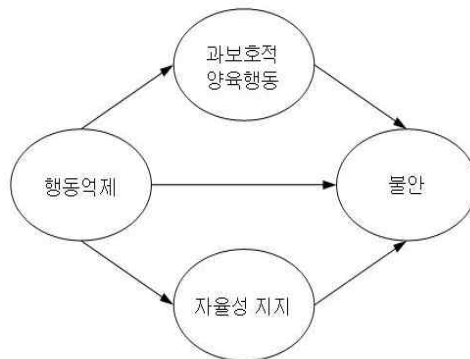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 295쌍이었다. 만 3~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유아의 비율이 높고(이경숙 등, 2004), 이 시기에 조기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변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며(Wolff & Ollendick, 2006), 이 시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26명(42.7%), 여아가 169명(57.3%)으로 여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147명(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4세가 86명(29.2%), 만 5세 62명(21.0%)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 13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80명(27.1%), 첫째가 61명(20.7%)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220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로 64명(22.4%)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83명(62.0%),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50명(16.9%) 순이었다. 취업모가 191명(65.7%)이었으며, 비취업모가 104명(35.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95)

변인	빈도(명)	비율(%)	변인	빈도(명)	비율(%)
성별			출생순위		
남아	126	42.7	외동	138	46.8
여아	169	57.3	첫째	61	20.7
연령			둘째	80	27.1
만 3세	147	49.8	셋째 이상	13	4.4
만 4세	86	29.2	무응답	3	1.0
만 5세	62	21.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모	191	65.7
			비취업모	104	35.3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20대	7	2.4	고등학교 중퇴/졸업	34	11.5
30대	220	74.6	전문대 졸업/대학교	50	16.9
40대	64	22.4	중퇴		
50대	2	0.7	대학교 졸업	183	62.0
			대학원 이상	28	9.5

### 2. 조사도구

#### 1)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ishop, Spence 그리고 McDonald(2003)가 제작한 행동억제

척도(Behavioral Inhibition Questionnaire [BIQ])를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BIQ는 사회적 행동억제(social novelty inhibition)와 상황적 행동억제(situational novelty inhibition)를 측정하는 총 6개의 하위요인(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행동억제에는 또래(peers) 6문항, 성인(adults) 4문항, 수행 상황(performance) 4문항이 포함되며 상황적 행동억제는 분리/유치원(separation/preschool) 4문항, 낯선 상황(new situations) 8문항, 신체적 도전(physical challenges) 4문항이 포함된다. 문항의 예로, 또래의 경우 ‘잘 모르는 또래들과 함께 하려고 접근하는 것을 꺼린다.’, 성인의 경우 ‘잘 모르는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조용하다.’, 수행상황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예: 노래하기, 춤추기)하는 것을 꺼린다.’ 등이 있다. 분리/유치원의 경우 ‘새로운 상황(예: 어린이집, 유치원)에 처음 놓일 때 언짢아한다.’, 낯선 상황의 경우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인다.’, 신체적 도전의 경우 ‘신체적인 도전과 관련된 활동(예: 오르기, 높은 곳에서 점프하기)을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또래 .83, 성인 .80, 수행 상황 .79, 분리/유치원 .79, 낯선 상황 .83, 신체적 도전 .67이었다.

## 2) 과보호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Doh와 Falbo(1999)의 부모의 보호(Parental Protectivenes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의 과보호는 아기취급 행동(babying behavior)과 보호적 행동(sheltering behavior)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 수는 총 16문항이다. 문항의 예로, 아기취급 행동(11문항)은 ‘아이가 어려서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돌보아준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편이다.’ 등이 있다. 보호적 행동(5문항)은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 ‘나는 아이에게 다칠지 모르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아기취급 행동 .74, 보호적 행동 .72로 나타났다.

## 3) 자율성 지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Grolnick, Ryan 그리고 Deci(1991)의 부모의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POPS])와 Williams와 Deci(1996)의 학습 분위기 척도(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 Soenens 등(2007)의 부모의 자율성 지지 측정 문항 등을 토대로 노보혜, 박성연 그리고 지연경(201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요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해준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4) 유아의 불안

유아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와 Kamphaus(1992)가 제작한 아동 행동문제 평가척도(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BASC])를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그리고 박진아(2003)가 표준화한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에 포함된 문항 중 불안과 관련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무엇이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걱정이 많은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불안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각 지역의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수집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사전 연락을 하여 기관장의 동의를 구한 뒤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에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첫 장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에 배부된 질문지는 총 210부였으며 이 중 152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72.38%).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지를 수집한 경우, 각 지역의 온라인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 연구 참가와 관련한 안내글과 함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자율적으로 응답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총 168부가 회수되었다. 최종 회수된 320부 중 연령이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하고, 29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각 변인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후 유아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와 Goodness of Fit Index (GFI),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각각의 개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변인 간 상관관계

유아의 행동억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유아의 불안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그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행동억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여,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유아는 불안을 더 보였다. 둘째, 행동억제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도전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아기취급 행동을 제외하고,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여 유아의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어머니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하였다. 셋째, 유아의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 수행 상황, 낯선 상황, 신체적 도전에서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할수록, 그리고 자율성 지지를 덜 할수록 유아의 불안이 높았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95)

변인	1	2	3	4	5	6	7	8	9	10
<b>행동억제</b>										
1. 또래	-									
2. 성인	.67***	-								
3. 수행 상황	.60***	.59***	-							
4. 분리/유치원	.55***	.48***	.54***	-						
5. 낯선 상황	.75***	.67***	.65***	.67***	-					
6. 신체적 도전	.48***	.35***	.44***	.37***	.50***	-				
<b>과보호적 양육행동</b>										
7. 아기취급 행동	.18**	.21***	.17**	.22***	.23***	.04	-			
8. 보호적 행동	.10**	.18**	.14*	.15*	.20***	.22***	.39***	-		
<b>자율성 지지</b>										
9. 자율성 지지	-.12*	-.05	-.16**	-.07	.20***	-.19**	.00	-.09	-	
<b>불안</b>										
10. 불안	.29***	.14*	.24***	.25***	.29***	.40***	.10	.25***	-.36***	-
M	3.56	3.60	3.54	3.58	3.59	2.98	2.65	2.42	3.09	0.62
SD	1.06	1.18	1.11	1.16	0.94	1.08	0.41	0.57	0.39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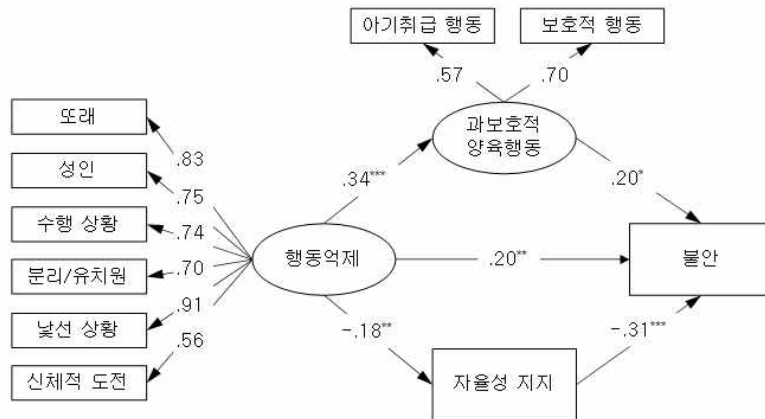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



## 2. 매개효과 분석

유아의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적인 경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 = 95.85(df = 32,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chi^2$ 는 표본수에 민감하다는 제한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GFI = .94, NFI = .92, TLI = .92, CFI = .94, RMSEA = .08(90\% CI = .06, .10)$ 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각 변인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2),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였다( $\beta = .20, p < .01$ ). 즉,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였다. 둘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 = .34, p < .001$ )에,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불안( $\beta = .20, p < .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할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beta = -.18, p < .01$ ),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불안( $\beta = -.31,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보였고,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덜 보일수록 유아의 불안이 높았다.



주) 측정변인의 오차항과 내생잠재변인의 잔차항은 생략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2.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자율성 지지를 통해 불안에 이르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표 3). 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

가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해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2, p < .01$ )는 유의하였다.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 각각의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 = .07, p < .05$ )과 자율성 지지( $\beta = .06, p < .05$ ) 각각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표 4). 두 간접효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과(표 3), 행동억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11.4%, 자율성 지지를 3.3% 설명하였고,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자율성 지지는 함께 불안을 23.3% 설명하였다.

표 3. 행동억제에서 불안으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295)

변수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행동억제	→	과보호	.34*		.34*	.11
행동억제	→	자율성 지지	-.18*		-.18*	.03
행동억제	→	불안	.20*	.12**	.32**	
과보호	→	불안	.20*		.20*	.23
자율성 지지	→	불안	-.31**		-.31**	

주)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음; SMC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임.

\* $p < .05$ , \*\* $p < .01$ .

표 4.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의 개별 간접효과 (N = 295)

변수 간 경로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행동억제	→	과보호	→	불안	.07*	.01~.13
행동억제	→	자율성 지지	→	불안	.06*	.01~.10

\* $p < .05$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를 더 보일수록 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Shamir-Essakow et al., 2004)의 결과와 일치하며,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Hudson et al., 2011)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유아는 낮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회피와 철회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Fox et al., 2005) 불안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는 가정에서 사회로 활동반경이 확장되며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더욱 증가하는데, 억제된 기질로 인해 회피, 철회 등의 반응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성이 검증된 인지행동 중재프로그램 (Rapee, Kennedy, Ingram, Edwards, & Sweeney, 2010) 등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유아의 높은 불안과 관련되었다. 이를 유아의 행동억제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 (Hudson et al., 2011; Rubin & Mills, 1990; Rubin et al.,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는 아니지만 행동억제를 보이는 걸음마기 아동이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이끌어 낸다는 결과 (Kiel & Buss, 2014)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를 보이는 자녀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부모가 자녀를 취약한 존재로 인지하고 자녀를 연령에 비해 더 어리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높은 불안 간 관계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Edwards et al., 2010)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을 받은 유아는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최유진, 오지현, 2017; Edwards et al., 201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에는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들(정익중, 2012)도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도 부모가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과보호하는 것은 자극이나 위협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더 심화시켜 아동의 탐색이나 대처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그 결과 유아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줍거나 억제된 아동들은 과보호적 양육을 불러일으켜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고 밝힌 선행 연구(Lengua & Kovacs, 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두려운 기질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불안을 예측했다는 결과(Kiel & Buss, 2012)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어린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억제된 행동을 인식하면 이를 취약성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아가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불안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억제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기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의 불

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감소를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Rapee et al., 2010), 유아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고, 그 결과 유아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유아의 행동억제가 자율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2세 때 수줍음을 많이 보일 경우 4세 때 어머니가 독립심을 덜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Rubin et al., 1999)와, 걸음마기 자녀가 행동억제를 보이는 경우 어머니가 성취를 장려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Chen et al., 1998)와 유사하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환경에 대해 적응이 어려운 행동억제 기질의 유아들이 스스로 탐색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여, 어머니가 자율성 지지를 더 할수록 유아의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경우 유아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는 연구 결과(서유희, 2013; 홍향기, 2015)와 맥을 같이 하며, 어머니가 독립심을 격려할수록 걸음마기 아동의 불안이 낮게 나타난 결과(Gibler et al., 2018)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10세 미만 아동의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는 연구(Verhoeven, Bögels, & van der Bruggen, 2012)와, 어머니의 도전을 장려하는 양육이 유아의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Majdandžić, Möller, de Vente, Bögels, & van den Boom, 2014)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어린 시기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연령에 적합한 관찰이나 지도의 부족으로 여겨져 자녀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억제된 아동이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을 스스로 마주함으로써 대처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유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와 행동억제의 정도에 따라 자율성 지지의 역할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유아의 행동억제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율성 지지를 덜 하고, 그 결과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억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행동을 덜 보여 유아가 높은 수준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Paulussen-Hoogbeem et al., 2008).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억제와도 관련성이 높은 기질적 차원으로(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경우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그러한 상황에 억제된 반응을 보이기 쉽다(Glögler & Pauli-Pott, 2008). 부정적 정서성은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Paulussen-Hoogbeem et al., 2008),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을 더 이끌어내는 반면, 긍정적인 양육을 덜 제공하게 한다(Rubin & Mills, 199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부정적인 양육, 즉 낮은 자율성 지지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유아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가 억제되거나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등 취약한 기질을 갖는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나, 유아기 발달의 장기적 관점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가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기회를 줄 수 있다(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을 자녀가 스스로 대처함으로써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환경에 숙달감을 갖도록 적절한 한계 설정 및 그 안에서 자율성을 보이도록 지지하는 것이 행동억제 기질의 유아에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어머니의 자기 보고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의 영향과, 변인 간 관계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머니가 보고하는 자신의 양육행동과 실제 자녀와 상호작용 시 보이는 양육 행동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찰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유아의 불안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나( $M = .62$ ,  $SD = .55$ ), 유아의 불안이 발달상 정상적인 수준인지 혹은 중재가 필요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여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Gullone, 2000)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불안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유아교육기관 교사 등의 보고를 더하여 유아의 불안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에 대한 행동억제의 설명력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 후속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지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지만,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불안을 내면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하위유형으로 보고, 일상에서 유아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에 대한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행동억제와 불안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행동억제는 일반적인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다수 이루어져(Chronis-Tuscano et al., 2009; Paulus et al., 2015), 후속 연구에서 불안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행동억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불안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 및 중재방안 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유아의 불안과 관련된 행동억제와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각각을 통한 효과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지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유아의 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양육행동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가 높은 유아는 불안에 취약하며,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덜 하고 자율성 지지를 더 보일수록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개발 또는 아동 상담현장에서 행동억제 기질 아동의 증재 및 부모 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굿네이버스 (2016). **유아 정신건강 컨퍼런스 우리아이 마음알기**. 부산: 굿네이버스 부산서부지부.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참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 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doi:10.5723/KJCS.2011.32.4.83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3). **영유아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 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 서윤희 (2013). 기질 및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 (2003). 한국판 영유아 행동문제 평가척도(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K-BASC)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75-191.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정영선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 사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4), 255-278.
- 최유진, 오지현 (2017). 자기성찰지능과 모의 과보호가 초등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 장애연구**, 33(4), 313-331. doi:10.33770/JEBD.33.4.15
- 홍향기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Albano, A. M., & Krain, A. (2005).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in girls. In D. J. Bell, S. L. Foster, & E. J. Mash (Eds.), *Handbook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girls* (pp. 79-116). Boston, MA: Springer.
- Andreadakis, E., Laurin, J. C., Joussemet, M., & Mageau, G. A. (2020). Toddler temperament, parent

- stress, and autonomy suppor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1), 3029-3043. doi:10.1007/s10826-020-01793-3
- Asendorpf, J. B. (1989). Shyness as a final common pathway for two different kinds of 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3), 481-492. doi:10.1037/0022-3514.57.3.481
- Barlow, D. H. (2002).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New York: Guilford.
- Bishop, G., Spence, S. H., & McDonald, C. (2003). Can parents and teachers provide a reliable and valid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Child Development*, 74(6), 1899-1917. doi:10.1046/j.1467-8624.2003.00645.x
- Bögels, S. M., & Brechman-Toussaint, M. L. (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7), 834-856. doi:10.1016/j.cpr.2005.08.001
- Chen, X., Hastings, P. D., Rubin, K. H., Chen, H., Cen, G., & Stewart, S. L. (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77-686. doi:10.1037/0012-1649.34.4.677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Diaz, Y., et al.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9), 928-935. doi:10.1097/CHI.0b013e3181ae09df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doi:10.1037/0012-1649.40.2.244
-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doi:10.1080/016502599384044
- Edwards, S. L., Rapee, R. M., & Kennedy, S.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3), 313-321. doi:10.1111/j.1469-7610.2009.02160.x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 235-262. doi: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32
- Fox, N. A., Henderson, H. A., Rubin, K. H., Calkins, S. D., & Schmidt, L. A. (200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exuberance: Psych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influences across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1), 1-21. doi:10.1111/1467-8624.00262
- Gibler, R. C., Kalomiris, A. E., & Kiel, E. J. (2018). Paternal anxiety in relation to toddler anxiety:

-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behavior.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9(4), 512-522. doi:10.1007/s10578-017-0771-7
- Glöggler, B., & Pauli-Pott, U. (2008). Different fear-regulation behaviors in toddlerhood: Relations to preceding infant negative emotionality, maternal depression, and sensitivity. *Merrill-Palmer Quarterly*, 54(1), 86-101. doi:10.1353/mpq.2008.0013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doi:10.1037/0022-0663.81.2.143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doi:10.1037/0022-0663.83.4.508
- Gullone, E. (2000). The development of normal fear: A century of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4), 429-451. doi:10.1016/S0272-7358(99)00034-3
- Hirshfeld, D. R., Rosenbaum, J. F., Biederman, J., Bolduc, E. A., Faraone, S. V., Snidman, N., et al. (1992). Stable behavioral inhibi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anxie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1), 103-111. doi:10.1097/00004583-199201000-00016
- Hirshfeld-Becker, D. R., Micco, J., Henin, A., Bloomfield, A., Biederman, J., & Rosenbaum, J. (2008). Behavioral inhibition. *Depression and Anxiety*, 25(4), 357-367. doi:10.1002/da.20490
- Howard, M., Muris, P., Loxton, H., & Wege, A. (2017). Anxiety-Proneness, anxiety symptoms, and the role of parental overprotection in young South Africa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1), 262-270. doi:10.1007/s10826-016-0545-z
- Hudson, J. L., Dodd, H. F., & Bovopoulos, N. (2011). Temperament, family environment and anxie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7), 939-951. doi:10.1007/s10802-011-9502-x
- Kagan, J. (2003). Behavioral inhibition as a temperamental category.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320-3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4849), 167-171. doi:10.1126/science.3353713
- Kiel, E. J., & Buss, K. A. (2012). Associations among context-specific maternal protective behavior, toddlers' fearful temperament, and maternal accuracy and goals. *Social Development*, 21(4), 742-760. doi:10.1111/j.1467-9507.2011.00645.x
- Kiel, E. J., & Buss, K. A. (2014). Dysregulated fear in toddlerhood predicts kindergarten social withdrawal through protective parent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304-313. doi:10.1002/icd.1855
- Lengua, L. J., &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21-38. doi:10.1016/j.appdev.2004.10.001
- Maag, B., Phelps, R. A., & Kiel, E. J. (2020). Do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indirectly link toddler dysregulated fear and child anxiety symptom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1-11. doi:10.1007/s10578-020-01004-6
- Majdandžić, M., Möller, E. L., de Vente, W., Bögels, S. M., & van den Boom, D. C. (2014). Fathers' challenging parenting behavior prevents social anxiety development in their 4-year-old children: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2), 301-310. doi:10.1007/s10802-013-9774-4
- Neitzel, C., & Stright, A. D. (2004). Parenting behaviours during child problem solving: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mother education and personality, and the problem-solving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2), 166-179. doi:10.1080/01650250344000370
- Partridge, T. (2003). Biological and caregiver correlates of behavioral inhibi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2(1), 71-87. doi:10.1002/icd.266
- Paulus, F. W., Backes, A., Sander, C. S., Weber, M., & von Gontard, A. (2015). Anxiety disorder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preschool children: A population-based study.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6(1), 150-157. doi:10.1007/s10578-014-0460-8
- Paulussen-Hoogbeem, M. C., Stams, G. J. J., Hermanns, J. M., Peetsma, T. T., & van den Wittenboer, G. L. (2008). Parenting style as a mediator between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roblematic behavior in early child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3), 209-226. doi:10.3200/GNTP.169.3.09-226
- Rapee, R. M. (2001). The development of generalised anxiety.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481-50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pee, R. M., Kennedy, S. J., Ingram, M., Edwards, S. L., & Sweeney, L. (2010). Altering the trajectory of anxiety in at-risk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12), 1518-1525. doi:10.1176/appi.ajp.2010.09111619
- Reynolds, C. R., & Kamphaus, R. W. (1992).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Rubin, K. H., & Mills, R. S.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4), 419-435. doi:10.1007/BF00917644
- Rubin, K. H., & Mills, R. S.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3(3), 300-317. doi:10.1037/h0079019
- Rubin, K. H., Nelson, L. J., Hastings, P., & Asendorpf, J. (1999). The transac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shyness and their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 937-957. doi:10.1080/016502599383612

- Shamir-Essakow, G., Ungerer, J. A., Rapee, R. M., & Safier, R. (2004). Caregiving representations of mothers of behavior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899-910. doi:10.1037/0012-1649.40.6.899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et al.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doi:10.1037/0012-1649.43.3.633
- Verhoeven, M., Bögels, S. M., & van der Bruggen, C. C. (2012). Unique roles of mothering and fathering in child anxiety: Moderation by child's age and gend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331-343. doi:10.1007/s10826-011-9483-y
- Wichstrøm, L., Belsky, J., & Berg-Nielsen, T. S. (2013). Preschool predictors of childhood anxiety disorders: A prospective community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12), 1327-1336. doi:10.1111/jcpp.12116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779. doi:10.1037/0022-3514.70.4.767
- Wittchen, H. U., & Essau, C. A. (1993). Comorbidity and mixed anxiety-depressive disorders: Is there epidemiologic evidenc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4*(1), 9-15.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3-4), 201-220. doi:10.1007/s10567-006-0011-3
- Wood, J. J., McLeod, B. D., Sigman, M., Hwang, W. C., &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1), 134-151. doi:10.1111/1469-7610.00106
- Woodruff-Borden, J., & Leyfer, O. T. (2006). Anxiety and fear. In M. Hersen (Ed.), *Clinician's handbook of child behavioral assessment* (pp. 267-289). Cambridge, MA: Academic Press. doi:10.1016/B978-012343014-4/50012-5

논문투고: 20.10.15  
수정원고접수: 20.11.19  
최종게재결정: 20.12.09